

Media Coverage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Future of
Digital Finance and Fintech Industry:
Towards Busan FinTech Hub**
(May 27, 2019)

□ Total 22 news media attended. As of May 27, 19 have written news story and 5 broadcast media filmed about it.

○News Agencies(5) - Newspim(1), News1(1), GukJe News(1), Newsis(1), Asia News Agency(1)

○Dailies(4) - Environmental Daily(1), Metro(1), Busan Ilbo(1), Kookje DailyNews(1)

○Weekly(1) - MoneyS(1)

○Monthly(1) - DongSeo News(1)

○Economic Dailies(4) - A-ju News(1), Viva100(1), Seoul Daily(1), Financial News(1)

○Online News(4) - Daily HanKook(1), CNBnews(1), NewDaily(1), Pressian(1)

○ Broadcast(5) - BusanMBC(3), BBS(1), T-broad(1)

부산시, '국제금융 콘퍼런스'...핀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 등

-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7:00
-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17:00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오는 27일 오전 8시 30분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세계경제연구원, BNK금융그룹과 공동으로 '부산 국제금융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디지털 금융시대와 핀테크 산업 : 부산 금융중심지의 미래'라는 주제로 아시아 핀테크 신생기업 리더들과의 특별 간담회,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 시대 등 4개 세션으로 나뉘 국내외 학계, 금융계 등 전문가들이 기조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IGE/WB/IIF/부산광역시/BNK 금융그룹
국제금융 컨퍼런스

디지털 금융시대와 핀테크 산업: 부산 금융중심지의 미래

일시

2019. 5. 26(일) 18:00 - 20:00

2019. 5. 27(월) 08:30 - 16:30

장소

부산 롯데호텔 컨벤션 3층 크리스탈 볼룸

공동주최



BNK 금융그룹



부산 국제금융 컨퍼런스 포스터 [사진제공=부산시청 제공] 2019.5.23.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 시대를 맞아 금융산업 구조적 변화의 전망 및 핵심 과제를 논의하고, 국내 핀테크 산업의 전반적인 육성, 창업 등과 연계한 부산 금융중심지 역할 강화방안 등을 살필 예정이다.

세계은행(WB)그룹 국제금융공사 동아시아.태평양 대표 비벡 파탁(Vivek Pathak), 홍콩 상하이은행(HSBC)그룹 사장 겸 CEO 데이비드 라오(David Y C LIAO),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국제금융 수석칼럼니스트 헨니 쉐더(Henny Sender) 등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기조발표 및 부산 핀테크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과 제언을 이어나간다.

컨퍼런스의 공동 주최기관인 세계경제연구원(IGE) 전광우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개최됐으나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0년을 맞아 부산이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 새로운 10년 성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부산에서 유치·개최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앞으로도 세계경제연구원과 함께 국제금융 콘퍼런스를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역내 대표적인 금융콘퍼런스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번 콘퍼런스의 전문가 제언을 분석해 실제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획과 구체적으로 연계, 부산국제금융센터를 명실상부한 아시아 대표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 뉴스핌 & Newspim.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 부산·경남

부산 금융중심지 미래 전망한다...부산 국제금융 콘퍼런스

27일 부산롯데호텔에서 개최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2019-05-23 09:17 송고

IGE/WB/IIF/부산광역시/BNK 금융그룹
국제금융 컨퍼런스

디지털 금융시대와 핀테크 산업: 부산 금융중심지의 미래

일시
2019. 5. 26(일) 18:00 - 20:00
2019. 5. 27(월) 08:30 - 16:30

장소
부산 롯데호텔 컨벤션 3층 크리스탈 볼룸

공동주최



부산 국제금융 콘퍼런스 포스터(부산시 제공)2019.5.23. 뉴스1

부산시는 27일 오전 8시30분 부산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BNK금융그룹과 공동으로 '부산 국제금융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디지털 금융시대와 핀테크 산업 : 부산 금융중심지의 미래'를 주제로 아시아 핀테크 신생기업 리더들과의 특별 간담회, 4차 산업혁명과 금융 혁신 시대 등 4개 세션으로 나눠 국내외 학계, 금융계 등 전문가들이 기조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 시대를 맞아 금융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과 핵심 과제를 논의하고, 국내 핀테크 산업의 전반적인 육성, 창업 등과 연계한 부산 금융중심지 역할 강화방안 등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세계은행(WB)그룹 국제금융공사 동아시아-태평양 대표 비벡 파탁(Vivek Pathak), 홍콩 상하이은행(HSBC)그룹 사장 겸 CEO 데이비드 라오(David Y C LIAO),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국제금융 수석칼럼니스트 헨리 쉐더(Henny Sender) 등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기조발표 및 부산 핀테크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과 제언을 이어나간다.

유재수 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콘퍼런스의 전문가 제언을 분석해 핀테크산업 생태계 조성계획과 연계, 부산국제금융센터를 명실상부한 아시아 대표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홈 > 뉴스 > 전국 > 부산 | 사회

"새로운 10년...부산 금융중심지 미래를 전망한다"

부산시,세계경제연구원·BNK금융그룹 '부산 국제금융 콘퍼런스' 개최

2019년 05월 23일 (목) 09:34:16

김옥빈 기자 obkim5153@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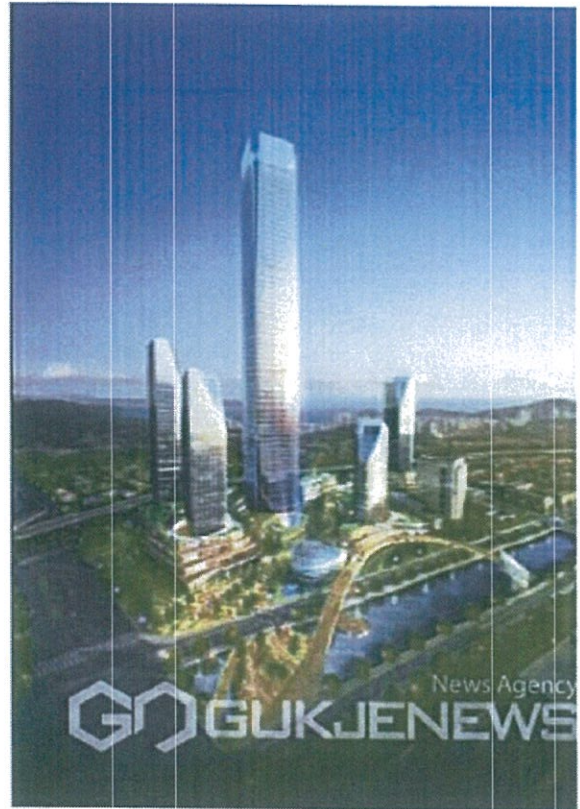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는 오는 27일 오전 8시 30분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세계경제연구원, BNK금융그룹과 공동으로 '부산 국제금융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디지털 금융시대와 핀테크 산업 : 부산 금융중심지의 미래'라는 주제로 아시아 핀테크 신생기업 리더들과의 특별 간담회,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 시대 등 4개 세션으로 나뉘어 국내외 학계, 금융계 등 전문가들이 기조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 시대를 맞아 금융산업 구조적 변화의 전망 및 핵심 과제를 논의하고, 국내 핀테크 산업의 전반적인 육성, 창업 등과 연계한 부산 금융중심지 역할 강화방안 등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세계은행(WB)그룹 국제금융공사 동아시아태평양 대표 비벡 파탁(Vivek Pathak), 홍콩 상하이은행(HSBC)그룹 사장 겸 CEO 데이비드 라오(David Y C LIAO),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국제금융 수석칼럼니스트 헨리 센더(Henny Sender) 등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기조발표 및 부산 핀테크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과 제언을 이어나간다.

콘퍼런스의 공동 주최기관인 세계경제연구원(IGE) 전광우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개최됐으나,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0년을 맞아 부산이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 새로운 10년 성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부산에서 유치·개최한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 문현금융단지 조감도

프로그램

2019. 05. 26 일요일			
한일 리셉션 및 만찬			
18:00	개회사	권광수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20:00	환영사	유재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한일 기조연설 이재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2019. 05. 27 월요일			
08:00	등록 및 준비		
08:30	세션 I. 국제금융의 구조변화와 핀테크의 진화: 최근 추세, 전망, 주요 이슈		
	사 회	Sorja Gibbs	국제금융협회(IF) Managing Director
	기조발표	David Y C LIAO	홍콩 산차이은행(HKBC) 중국그룹 사장 겸 CEO
08:30	패널리스트		
10:00		전길수	금융감독원 (FTI) 핀테크한국국 선임국장
		신성환	홍익대 교수, 차기 한국금융학회장, 전 금융연구원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김경식	연세대 교수, 전 한국경제학회장
개회식			
	컨퍼런스 진행	전현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개회사	권광수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환영사	오거돈	부산광역시 시장
10:15	속 사	윤석현	금융감독원 원장
11:00	기조연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념촬영			

세션 II. 아시아 핀테크 산업기업 리더들과의 특별간담회: 부산 핀테크 시트			
	사 회	Herry Sender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I) 국제금융 수석칼럼니스트
	기조발표	Vivek Pathak	세계은행(WB)그룹 국제금융공사(IFC) 동아시아 태평양 대표
11:00	패널리스트		
12:30		Rosaline Chow Koo	CXA Group 설립자 겸 CEO
		Oskar Miel	Rakuten Capital 대표
		Rebecca Chua	Premia Partners CEO
		Patrick Yoon	VISA International Asia Pacific 대표
		Joey Kim	PeopleFund 설립자 겸 대표
12:30	오찬		
13:30	세션 III.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과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 전략: 핀테크 허브 미래비전		
	사 회	이유태	부경대 교수, 금융중심지혁신포럼 회장
	기조발표	김경준	달로이트컨설팅(코리아) 부회장
13:30	패널리스트		
15:00		석창규	협캐시그룹 회장
		이기환	한국해양대 해양금융대학원장
		김영재	부산대 교수
		구영훈	BAK 금융그룹 연구소장
		김홍배	홍익대 교수
		정승희	한국예탁결제원 상무
세션 IV. <패널토론>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 시대: 디지털금융 발전 로드맵과 정책 과제			
	사 회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전 금융연구원장
15:15	패널리스트		
16:30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김경식	연세대 교수, 전 한국경제학회장
		이장우	부산대 금융대학원장
		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 '부산 국제금융 콘퍼런스' 일정표

부산시 유재수 경제부시장은 "앞으로도 세계경제연구원과 함께 국제금융 콘퍼런스를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역내 대표적인 금융콘퍼런스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번 콘퍼런스의 전문가 제언을 분석해 실제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획과 구체적으로 연계, 부산국제금융센터를 명실상부한 아시아 대표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콘퍼런스 주제인 핀테크 산업 육성과 관련 '부산시-위워크(WeWork) 핀테크허브센터(가칭)'를 오는 7월 말 개소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등 19개 핀테크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며,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를 명실상부 아시아 대표 핀테크 금융혁신 1번지로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국제뉴스(http://www.gukje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인쇄하기 📄 당달기

리얼타임 뉴스 NEWSIS 지방 > 지방일반

부산 금융 미래를 전망한다...'국제금융 콘퍼런스' 개최

허상천 기자 | heraid@newsis.com

등록 2019-05-23 08:17:13

IGE/WB/IIF/부산광역시/BNK 금융그룹
국제금융 콘퍼런스

디지털 금융시대와 핀테크 산업: 부산 금융중심지의 미래

일시
2019. 5. 26(일) 18:00 - 20:00
2019. 5. 27(월) 08:30 - 16:30

장소
부산 롯데호텔 컨벤션 3층 크리스탈 볼룸

공동주최



[부산=뉴스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오는 27일 오전 8시30분 부산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IGE(세계경제연구원)·WB(세계은행)·IIF(국제금융협회)

·BNK 금융그룹이 공동으로 '부산 국제금융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2019.05.23. (포스터 = 부산시 제공) photo@newsis.com

【부산=뉴스시스】허상천 기자 =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들이 부산에서 핀테크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부산시는 오는 27일 오전 8시30분 부산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IGE(세계경제연구원)·WB(세계은행)·IF(국제금융협회)·BNK 금융그룹이 공동으로 '부산 국제금융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디지털 금융시대와 핀테크 산업, 부산 금융중심지의 미래'라는 주제로 아시아 핀테크 신생기업 리더들과의 특별 간담회,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 시대 등 4개 세션으로 나눠 국내외 학계·금융계 등 전문가들이 기조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 시대를 맞아 금융산업 구조적 변화의 전망 및 핵심 과제를 논의하고, 국내 핀테크 산업의 전반적인 육성, 창업 등과 연계한 부산 금융중심지 역할 강화방안 등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세계은행(WB)그룹 국제금융공사 동아시아·태평양 대표 비벡 파탁(Vivek Pathak), 홍콩 상하이은행(HSBC)그룹 사장 겸 CEO 데이비드 라오(David Y C LIAO),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국제금융 수석 칼럼니스트 헨리 센더(Henny Sender) 등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기조발표 및 부산 핀테크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과 제언을 이어 나간다.

콘퍼런스의 공동 주최기관인 세계경제연구원(IGE) 전광우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개최됐으나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0년을 맞아 부산이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 새로운 10년 성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부산에서 유치·개최한다"며 부산 개최 의미를 강조했다.

부산시 유재수 경제부시장은 "앞으로도 세계경제연구원과 함께 국제금융 콘퍼런스를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역내 대표적인 금융콘퍼런스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콘퍼런스의 전문가 제언을 분석해 실제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획과 구체적으로 연계, 부산국제금융센터를 명실상부한 아시아 대표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콘퍼런스 주제인 핀테크 산업 육성과 관련 '부산시-위워크(WeWork) 핀테크허브센터(가칭)'를 오는 7월 말 개소할 계획이다. 이 센터에는 스타트업 등 19개 핀테크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시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를 명실상부한 아시아 대표 핀테크 금융혁신 1번지로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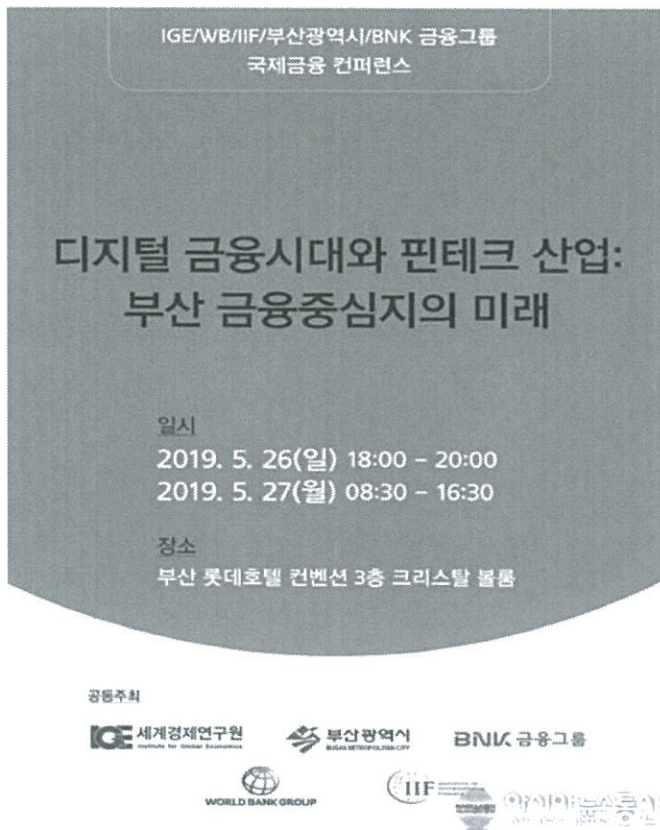
heraid@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로운 10년, 부산 금융중심지 미래 전망한다

- 부산시.세계경제연구원.BNK금융그룹, 부산 국제금융 콘퍼런스 열어
 - 오는 27일 오전 8시 30분 부산롯데호텔 3층에서 열려, 26일 오후 6시 환영 리셉션 및 만찬 예정
 - 지난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개최,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0년을 맞아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부산의 새로운 10년을 위해 부산 유치
- (아시아뉴스통신= 하영국기자)

뉴스일자 : 2019-05-24 12:28:24



부산 국제금융 콘퍼런스 포스터./자료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오는 27일 오전 8시 30분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전광우), BNK금융그룹(회장 김지완)과 공동으로 부산 국제금융 콘퍼런스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디지털 금융시대와 핀테크 산업 : 부산 금융중심지의 미래라는 주제로 아시아 핀테크 신생기업 리더들과의 특별 간담회,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 시대 등 4개 세션으로 나눠 국내외 학계, 금융계 등 전문가들이 기조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 시대를 맞아 금융산업 구조적 변화의 전망 및 핵심 과제를 논의하고, 국내 핀테크 산업의 전반적인 육성, 창업 등과 연계한 부산 금융중심지 역할 강화방안 등을 살핀다.

특히, 세계은행(WB)그룹 국제금융공사 동아시아.태평양 대표 비벡 파탁(Vivek Pathak), 홍콩 상하이은행(HSBC)그룹 사장 겸 CEO 데이비드 라오(David Y C LIAO),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국제금융 수석칼럼니스트 헤니 센더(Henny Sender) 등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기조발표 및 부산 핀테크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과 제언을 이어나간다.

콘퍼런스의 공동 주최기관인 세계경제연구원(IGE) 전광우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지난 1993년부터 지난해까

지 서울에서 열렸으나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0년을 맞아 부산이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 새로운 10년 성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부산에서 유차·개최한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시 유재수 경제부시장은 앞으로도 세계경제연구원과 함께 국제금융 콘퍼런스를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역대 대표적인 금융콘퍼런스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이번 콘퍼런스의 전문가 제언을 분석해 실제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획과 구체적으로 연계, 부산국제금융센터를 명실상부한 아시아 대표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콘퍼런스 주제인 핀테크 산업 육성과 관련 부산시-위워크(WeWork) 핀테크허브센터(가칭)를 오는 7월 말 개소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등 19개 핀테크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며,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를 명실상부 아시아 대표 핀테크 금융혁신 1번지로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oxsan7247@daum.net



하영국

제보전화 : 1644-3331

이 뉴스클리핑은 <http://www.anews.com>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Copyright © 2019 (주)아시아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새로운 10년, '부산 금융 중심지의 미래' 전망

부산시·세계경제연구원·BNK금융그룹, '부산 국제금융 컨퍼런스' 개최

권영길 기자

승인 2019.05.23 09:58

IGE/WB/IIF/부산광역시/BNK 금융그룹
국제금융 컨퍼런스

디지털 금융시대와 핀테크 산업: 부산 금융중심지의 미래

일시

2019. 5. 26(일) 18:00 - 20:00

2019. 5. 27(월) 08:30 - 16:30

장소

부산 롯데호텔 컨벤션 3층 크리스탈 볼룸

공동주최



BNK 금융그룹



'부산 국제금융 컨퍼런스' 포스터 <자료출처: 부산시>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5월27일 오전 8시30분 부산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3층)에서 세계경제연구원, BNK금융그룹(회장 김지완) 과 공동으로 '부산 국제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5월26일 오후 6시에는 환영 리셉션 및 만찬이 열린다.

이번 컨퍼런스는 '디지털 금융시대와 핀테크산업, 부산 금융중심지의 미래'라는 주제로 아시아 핀테크 신생기업 리더들과의 특별 간담회,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시대 등 4개 세션으로

나뉘 국내·외 학계, 금융계 등 전문가들이 기조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개최했고,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0년을 맞아 동북아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부산의 새로운 10년을 위해 부산에 유치했다.

세션 II. 아시아 핀테크 신생기업 리더들과의 특별간담회: 부산 핀테크 서밋

사 회	Henry Sender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 국제금융 수석칼럼니스트
기조발표	Vivek Pathak	세계은행(WB)그룹 국제금융공사(IFC) 동아시아·태평양 대표
11:00 - 12:30	패널리스트	Rosaline Chow Koo CXA Group 설립자 겸 CEO Oskar Miel Rakuten Capital 대표 Rebecca Chua Premia Partners CEO Patrick Yoon VISA International, Asia Pacific 대표 Joey Kim PeopleFund 설립자 겸 대표

12:30 - 13:30 오찬

세션 III.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과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 전략: 핀테크 허브 미래비전

사 회	이유태	부경대 교수, 금융중심지혁신포럼 회장
기조발표	김경준	딜로이트컨설팅(코리아) 부회장
13:30 - 15:00	패널리스트	석창규 헵캐시그룹 회장 이기환 한국해양대 해양금융대학원장 김영재 부산대 교수 구영훈 BNK 금융그룹 연구소장 김홍배 동서대 교수 정승화 한국예탁결제원 상무

세션 IV. <패널토론>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 시대: 디지털금융 발전 로드맵과 정책 과제

사 회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전 금융연구원장
15:15 - 16:30	패널리스트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김정식 연세대 교수, 전 한국경제학회 회장 이장우 부산대 금융대학원장 김대운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부산 국제금융 컨퍼런스' 행사 일정 <자료출처=부산시>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 시대를 맞아 금융산업 구조적 변화의 전망 및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국내 핀테크산업의 전반적인 육성, 창업 등과 연계한 부산 금융중심지 역할 강화방안 등

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세계은행(WB)그룹 국제금융공사 동아시아태평양 대표 비벡 파탁 (Vivek Pathak), 홍콩 상하이은행(HSBC)그룹 사장 겸 CEO 데이비드 라오 (David Y C LIAO),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국제금융 수석칼럼니스트 헤니 센더 (Henny Sender) 등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기조발표 및 부산 핀테크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과 제언을 이어나간다.

컨퍼런스의 공동 주최기관인 세계경제연구원 (IGE) 전광우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개최됐으나,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0년을 맞아 부산이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 새로운 10년 성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부산에서 유치·개최한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부산시 유재수 경제부시장은 “앞으로도 세계경제연구원과 함께 국제금융 컨퍼런스를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역내 대표적인 금융컨퍼런스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며, 이번 컨퍼런스의 전문가 제언을 분석해 실제 핀테크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계획과 구체적으로 연계해 부산국제금융센터를 명실상부한 아시아 대표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콘퍼런스 주제인 핀테크산업 육성과 관련 ‘부산시-위워크 (WeWork) 핀테크허브센터(가칭)’를 오는 7월말 개소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등 19개 핀테크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며,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를 명실상부 아시아 대표 핀테크 금융혁신 1번지로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권영길 기자 suneye2@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핀테크를 논하다 ‘국제금융 콘퍼런스’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

입력: 2019-05-27 [19:37:42] 수정: 2019-05-27 [19:38:22] 게재: 2019-05-27 [19:39:26]

부산시는 27일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세계경제연구원, BNK금융그룹과 공동으로 ‘부산 국제금융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디지털 금융시대와 핀테크 산업: 부산 금융중심지의 미래’라는 주제로 아시아 핀테크 신생기업 리더들과의 특별 간담회,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 시대 등 4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핀테크 금융시장에서 성공한 세계적인 CEO와 국내외 전문가 등이 참가해 미래금융시장의 변화와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콘퍼런스의 공동 주최기관인 세계경제연구원(IGE) 전광우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개최됐으나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0년을 맞아 부산이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 새로운 10년 성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부산에서 열렸다”고 행사 개최 의미를 밝혔다. 한편, 시는 부산시-위워크(WeWork) 핀테크허브센터(가칭)를 오는 7월 말 개소할 계획이다.

강희경 기자 himang@

부산 국제금융 콘퍼런스

국제신문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 입력 : 2019-05-27 19:31:31 | 본지 15면

27일 부산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국제금융 콘퍼런스 행사 중 하나인 아시아 핀테크 신생 기업 리더와의 특별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부산시는 금융중심지 지정 10년을 기념해 세계경제연구원, BNK금융그룹과 공동으로 '부산 국제금융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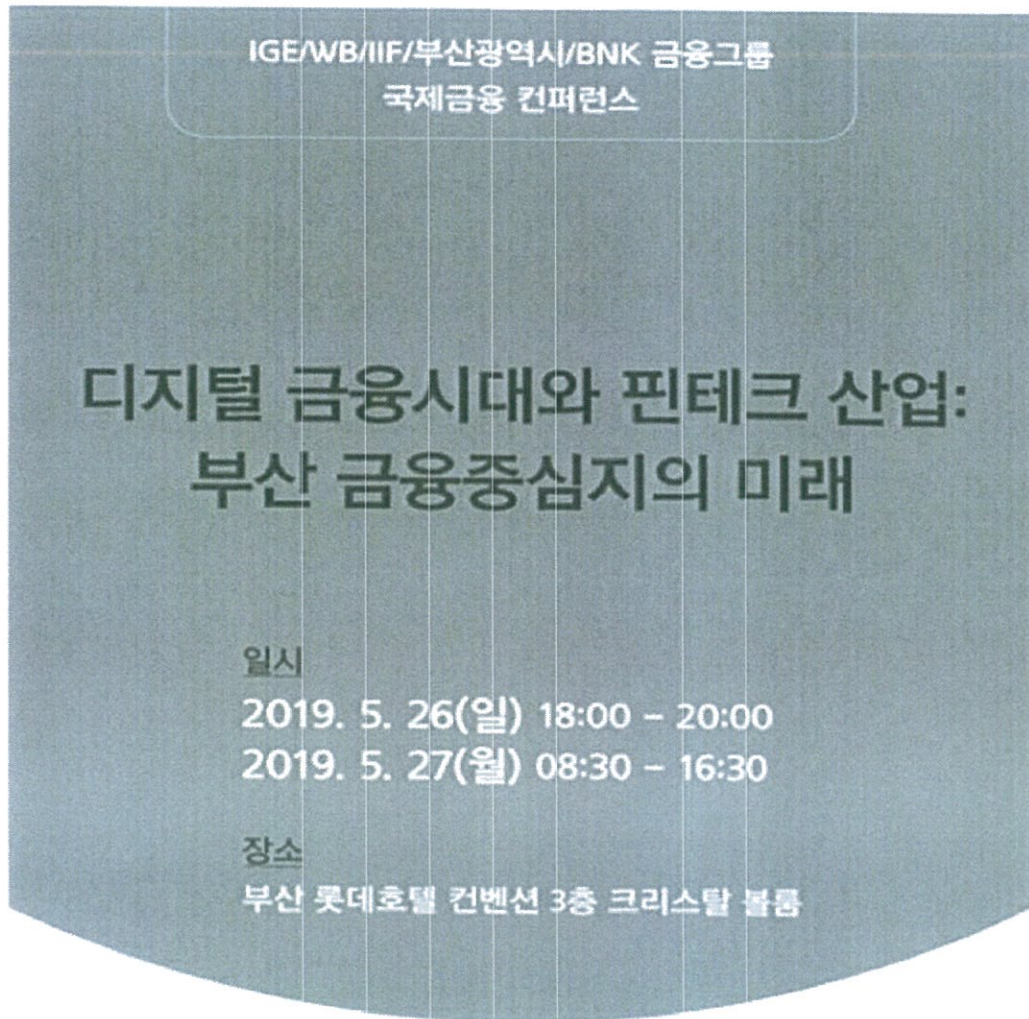
부산의 큰 목소리, 국제신문

Copyright © kookje.co.kr, All rights reserved.



부산시, 부산국제금융컨퍼런스 27일 개최

2019-05-23 14:00:35



공동주최



▲ 부산시가 오는 27일 개최하는 부산국제금융컨퍼런스 포스터(사진=부산시)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오는 27일 오전 8시 30분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전광우), BNK금융그룹(회장 김지완)과 공동으로 '부산

국제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부산시 유재수 경제부시장은 23일 "앞으로도 세계 경제연구원과 함께 국제금융 컨퍼런스를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역내 대표적인 금융컨퍼런스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번 컨퍼런스의 전문가 제언을 분석해 실제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획과 구체적으로 연계, 부산 국제금융센터를 명실상부한 아시아 대표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디지털 금융시대와 핀테크 산업 : 부산 금융중심지의 미래'라는 주제로 아시아 핀테크 신생기업 리더들과의 특별 간담회,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 시대 등 4개 세션으로 나뉘 국내외 학계, 금융계 등 전문가들이 기조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 시대를 맞아 금융산업 구조적 변화의 전망 및 핵심 과제를 논의하고, 국내 핀테크 산업의 전반적인 육성, 창업 등과 연계한 부산 금융중심지 역할 강화방안 등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세계은행(WB)그룹 국제금융공사 동아시아·태평양 대표 비벡 파탁(Vivek Pathak), 홍콩 상하이은행(HSBC)그룹 사장 겸 CEO 데이비드 라오(David Y C LIAO),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국제금융 수석칼럼니스트 헨리 샌더(Henny Sender) 등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기조발표 및 부산 핀테크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과 제언을 진행한다.

컨퍼런스의 공동 주최기관인 세계경제연구원(IGE) 전광우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개최됐으나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0년을 맞아 부산이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 새로운 10년 성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부산에서 유치·개최한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컨퍼런스 주제인 핀테크 산업 육성과 관련 '부산시-위워크(WeWork) 핀테크허브센터(가칭)'를 오는 7월 말 개소할 계획"이라며 "스타트업 등 19개 핀테크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며,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를 명실상부 아시아 대표 핀테크 금융혁신 1번지로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최인락 기자(remark@)

세계 최대 종합일간지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산시, 새로운 10년 금융중심지의 미래를 전망한다

부산=김동기 기자 | 입력 : 2019.05.23 08:23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세계경제연구원, BNK금융그룹과 공동으로 '부산 국제금융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오는 27일 오전 8시30분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는 '디지털 금융시대와 핀테크 산업 : 부산 금융중심지의 미래'라는 주제로 아시아 핀테크 신생기업 리더들과의 특별 간담회,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 시대 등 4개 세션으로 나눠 국내외 학계, 금융계 등 전문가들이 기조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 시대를 맞아 금융산업 구조적 변화의 전망 및 핵심 과제를 논의하고, 국내 핀테크 산업의 전반적인 육성, 창업 등과 연계한 부산 금융중심지 역할 강화방안 등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세계은행(WB)그룹 국제금융공사 동아시아·태평양 대표 비벡 파탁, 홍콩 상하이은행(HSBC)그룹 사장 겸 CEO 데이비드 라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국제금융 수석칼럼

니스트 헤니 센터 등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기조발표 및 부산 핀테크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과 제언을 이어나간다.

컨퍼런스의 공동 주최기관인 세계경제연구원(IGE) 전광우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개최됐으나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0년을 맞아 부산이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 새로운 10년 성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부산에서 유치·개최한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앞으로도 세계경제연구원과 함께 국제금융 콘퍼런스를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역내 대표적인 금융콘퍼런스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번 콘퍼런스의 전문가 제언을 분석해 실제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획과 구체적으로 연계, 부산국제금융센터를 명실상부한 아시아 대표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콘퍼런스 주제인 핀테크 산업 육성과 관련 '부산시-위워크(WeWork) 핀테크허브센터(가칭)'를 오는 7월 말 개소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등 19개 핀테크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만기 또는 반대매매 임박한 미수/신용 상환대출 인기, 반대매매비율 140%=>115% ☎1577-5852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사주소 |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052307148089349>

 [프린트](#)  [달기](#)

since 1999 영호남 교류와 지식보존 대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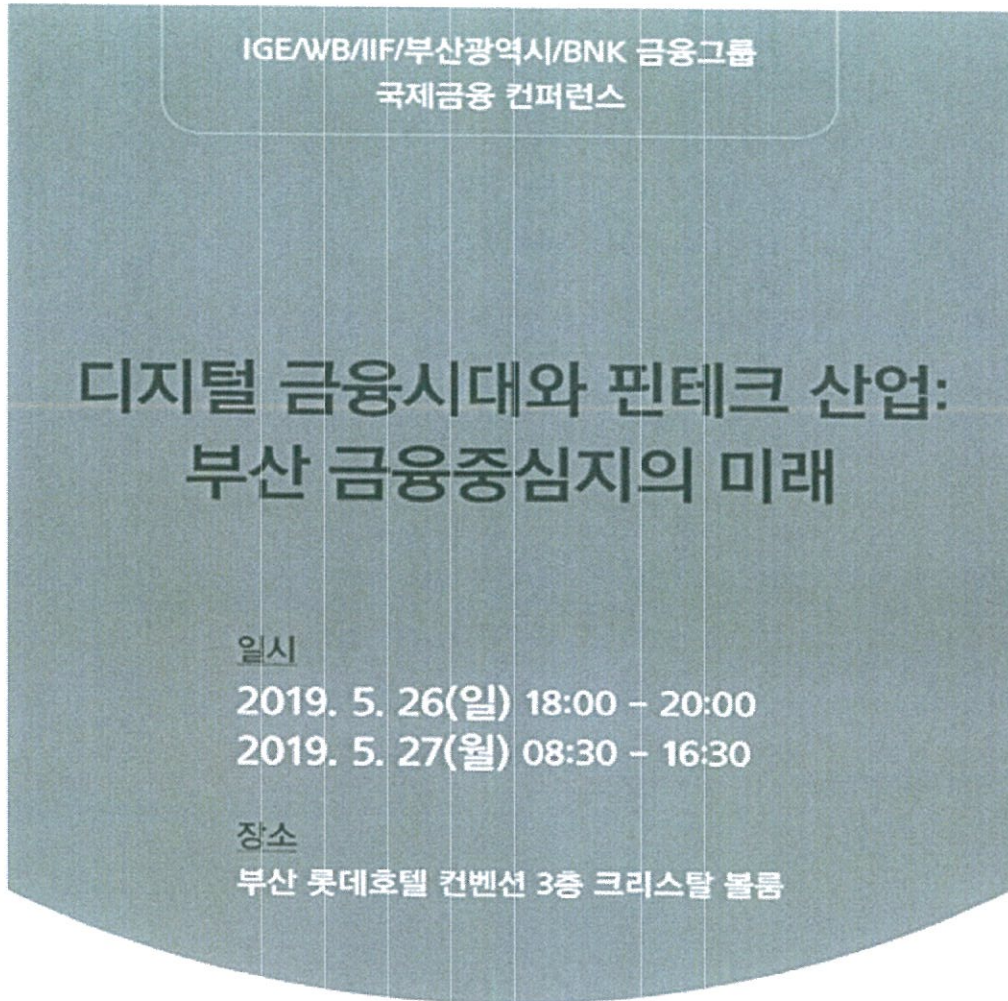
東西저널

HOME > 경제

부산시.세계경제연구원.BNK금융그룹, 「부산 국제 금융 콘퍼런스」 개최

ⓒ 이석희 Ⓞ 승인 2019.05.23 07:39

5.27. 08:30 부산롯데호텔 3층에서 개최, 5.26. 18:00 환영 리셉션 및 만찬 열
려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개최,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0년을 맞아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부산의 새로운 10년을 위해 부산 유치



공동주최



BNK 금융그룹



부산시는 5월 27일 오전 8시 30분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전광우), BNK금융그룹(회장 김지완)과 공동으로 「부산 국제금융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자료제공=부산시]

[부산=동서저널] 이석희 기자 = 부산시는 5월 27일 오전 8시 30분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전광우), BNK금융그룹(회장 김지완)과 공동으로 「부산 국제금융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디지털 금융시대와 핀테크 산업 : 부산 금융중심지의 미래'라는 주제로 아시아 핀테크 신생기업 리더들과의 특별 간담회,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 시대 등 4개 세션으로 나눠 국내외 학계, 금융계 등 전문가들이 기조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 시대를 맞아 금융산업 구조적 변화의 전망 및 핵심 과제를 논의하고, 국내 핀테크 산업의 전반적인 육성, 창업 등과 연계한 부산 금융중심지 역할 강화방안 등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세계은행(WB)그룹 국제금융공사 동아시아.태평양 대표 비벡 파탁 (Vivek Pathak), 홍콩 상하이은행(HSBC)그룹 사장 겸 CEO 데이비드 라오 (David Y C LIAO),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국제금융 수석칼럼니스트 헤니 센더 (Henny Sender) 등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기조발표 및 부산 핀테크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과 제언을 이어나간다.

콘퍼런스의 공동 주최기관인 세계경제연구원(IGE) 전광우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개최됐으나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0년을 맞아 부산이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 새로운 10년 성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부산에서 유치·개최한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부산시 유재수 경제부시장은 “앞으로도 세계경제연구원과 함께 국제금융 콘퍼런스를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역내 대표적인 금융콘퍼런스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이번 콘퍼런스의 전문가 제언을 분석해 실제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획과 구체적으로 연계, 부산국제금융센터를 명실상부한 아시아 대표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콘퍼런스 주제인 핀테크 산업 육성과 관련 「부산시-위워크 (WeWork) 핀테크허브센터(가칭)」를 오는 7월 말 개소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등 19개 핀테크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며,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를 명실상부 아시아 대표 핀테크 금융혁신 1번지로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저작권자 © 동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석희

아주경제

인쇄하기

닫기

부산시-세계경제연구원-BNK금융그룹, '국제금융 컨퍼런스' 개최

새로운 10년...부산 금융중심지의 미래를 전망한다!

(부산)이채열 기자 (oxon99@ajunews.com) | 입력 : 2019-05-23 11:50 | 수정 : 2019-05-23 11:50

IGE/WB/IIF/부산광역시/BNK 금융그룹
국제금융 컨퍼런스

디지털 금융시대와 핀테크 산업: 부산 금융중심지의 미래

일시
2019. 5. 26(일) 18:00 - 20:00
2019. 5. 27(월) 08:30 - 16:30

장소
부산 롯데호텔 컨벤션 3층 크리스탈 볼룸

공동주최



부산 금융중심지의 미래를 조명하는 국제금융 컨퍼런스가 오는 16일, 27일 부산에서 열린다.[사진=부산시 제공]컨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0년을 맞아 '국제금융 콘퍼런스'가 열린다.

오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는 디지털 금융시대와 핀테크 산업 : 부산 금융중심지의 미래'라는 주제로 아시아 핀테크 신생기업 리더들과의 특별 간담회,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 시대 등 4개 세션으로 나눠 국내외 학계, 금융계 등 전문가들이 기조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 시대를 맞아 금융산업 구조적 변화의 전망 및 핵심 과제를 논의하고, 국내 핀테크 산업의 전반적인 육성, 창업 등과 연계한 부산 금융중심지 역할 강화방안 등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세계은행(WB)그룹 국제금융공사 동아시아.태평양 대표 비벡 파탁(Vivek Pathak), 홍콩 상하이은행(HSBC)그룹 사장 겸 CEO 데이비드 랴오(David Y C LIAO),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국제금융 수석칼럼니스트 헤니 센더(Henny Sender) 등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기조발표 및 부산 핀테크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과 제언을 이어나간다.

콘퍼런스의 공동 주최기관인 세계경제연구원(IGE) 전광우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개최됐으나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0년을 맞아 부산이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 새로운 10년 성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부산에서 유치·개최한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부산시 유재수 경제부시장은 "앞으로도 세계경제연구원과 함께 국제금융 콘퍼런스를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역내 대표적인 금융콘퍼런스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이번 콘퍼런스의 전문가 제언을 분석해 실제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획과 구체적으로 연계, 부산국제금융센터를 명실상부한 아시아 대표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콘퍼런스 주제인 핀테크 산업 육성과 관련 '부산시-위워크(WeWork) 핀테크허브센터(가칭)'를 오는 7월 말 개소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등 19개 핀테크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며,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를 명실상부 아시아 대표 핀테크 금융 혁신 1번지로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이채열 기자(oxon9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상생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브릿지경제

새로운 10년 위해 '부산 국제금융 콘퍼런스' 개최

27일 오전 8시 30분 부산롯데호텔 3층에서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들 대거 참석

안미향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19-05-23 08:58

IGE/WB/IIF/부산광역시/BNK 금융그룹
국제금융 콘퍼런스

디지털 금융시대와 핀테크 산업: 부산 금융중심지의 미래

일시
2019. 5. 26(일) 18:00 - 20:00
2019. 5. 27(월) 08:30 - 16:30

장소
부산 롯데호텔 컨벤션 3층 크리스탈 볼룸

공동주최



BNK 금융그룹



부산시가 금융중심지 지정 10년을 맞아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부산의 새로운 10년을 위해 '부산 국제금융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부산시는 오는 27일 부산롯데 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세계경제연구원, BNK금융그룹과 공동으로 '부산 국제금융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디지털 금융시대와 핀테크 산업 : 부산 금융중심지의 미래'라는 주제로 아시아 핀테크 신생기업 리더들과의 특별 간담회,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 시대 등 4개 세션으로 나눠 국내외 학계, 금융계 등 전문가들이 기조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특히, 세계은행(WB)그룹 국제금융공사 동아시아·태평양 대표 비벡 파탁(Vivek Pathak), 홍콩 상하이은행(HSBC)그룹 사장 겸 CEO 데이비드 라오(David Y C LIAO),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국제금융 수석칼럼니스트 헨리 쉐더(Henny Sender) 등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기조발표 및 부산 핀테크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과 제언을 이어나간다.

콘퍼런스의 공동 주최기관인 세계경제연구원(IGE) 전광우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개최됐으나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0년을 맞아 부산이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 새로운 10년 성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부산에서 유치·개최한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부산시 유재수 경제부시장은 "이번 콘퍼런스의 전문가 제언을 분석해 실제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획과 구체적으로 연계해 부산국제 금융센터를 명실상부한 아시아 대표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미향 기자 hinlion@viva100.com

27일 부산 금융중심지 미래 전망 콘퍼런스 개최

조원진기자 2019-05-23 08:47:02 전국

부산시는 27일 부산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세계경제연구원, BNK금융그룹과 함께 '국제금융 콘퍼런스'를 연다. 이번 콘퍼런스는 '디지털 금융시대와 핀테크 산업-부산 금융중심지의 미래'란 주제를 다룬다.

콘퍼런스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 시대를 맞아 금융산업 구조적 변화의 전망 및 핵심 과제를 논의하고 국내 핀테크 산업의 전반적인 육성, 창업 등과 연계한 부산 금융중심지 역할 강화방안 등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세계은행(WB)그룹 국제금융공사 동아시아태평양 대표 비백파탁, 홍콩상하이은행(HSBC)그룹 사장 겸 CEO 데이비드 라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국제금융 수석칼럼니스트 헤니 센터 등 금융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기초발표를 하고 부산 핀테크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과 제언을 이어나간다.

부산시는 이번 콘퍼런스 주제인 핀테크 산업 육성과 관련해 '부산시-위워크(WeWork) 핀테크허브센터(가칭)'를 오는 7월 말 개소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등 19개 핀테크 기업이 입주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중심지 부산, 핀테크산업 육성 모색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9.05.23 09:21 수정 : 2019.05.23 09:21

금융중심지 부산에서 핀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콘퍼런스가 열린다.

부산시는 27일 부전동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세계경제연구원, BNK금융그룹과 공동으로 '부산 국제금융 콘퍼런스'를 갖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디지털 금융시대와 핀테크 산업, 부산 금융중심지의 미래'라는 주제로 아시아 핀테크 신생기업 리더들과의 특별 간담회,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 시대 등 4개 세션으로 나뉘 국내외 학계, 금융계 등 전문가들이 기조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 시대를 맞아 금융산업 구조적 변화의 전망과 핵심 과제를 논의하고 국내 핀테크 산업의 전반적인 육성, 창업 등과 연계한 부산 금융중심지 역할 강화방안 등을 모색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내외 금융 전문가들이 참여해 부산 핀테크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부산시 유재수 경제부시장은 "이번 콘퍼런스의 전문가 제언을 분석해 실제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획과 구체적으로 연계, 부산국제금융센터를 명실상부한 아시아 대표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번 콘퍼런스 주제인 핀테크 산업 육성과 관련, '부산시-위워크(WeWork) 핀테크허브센터(가칭)'를 오는 7월 말 개소, 스타트업 등 19개 핀테크 기업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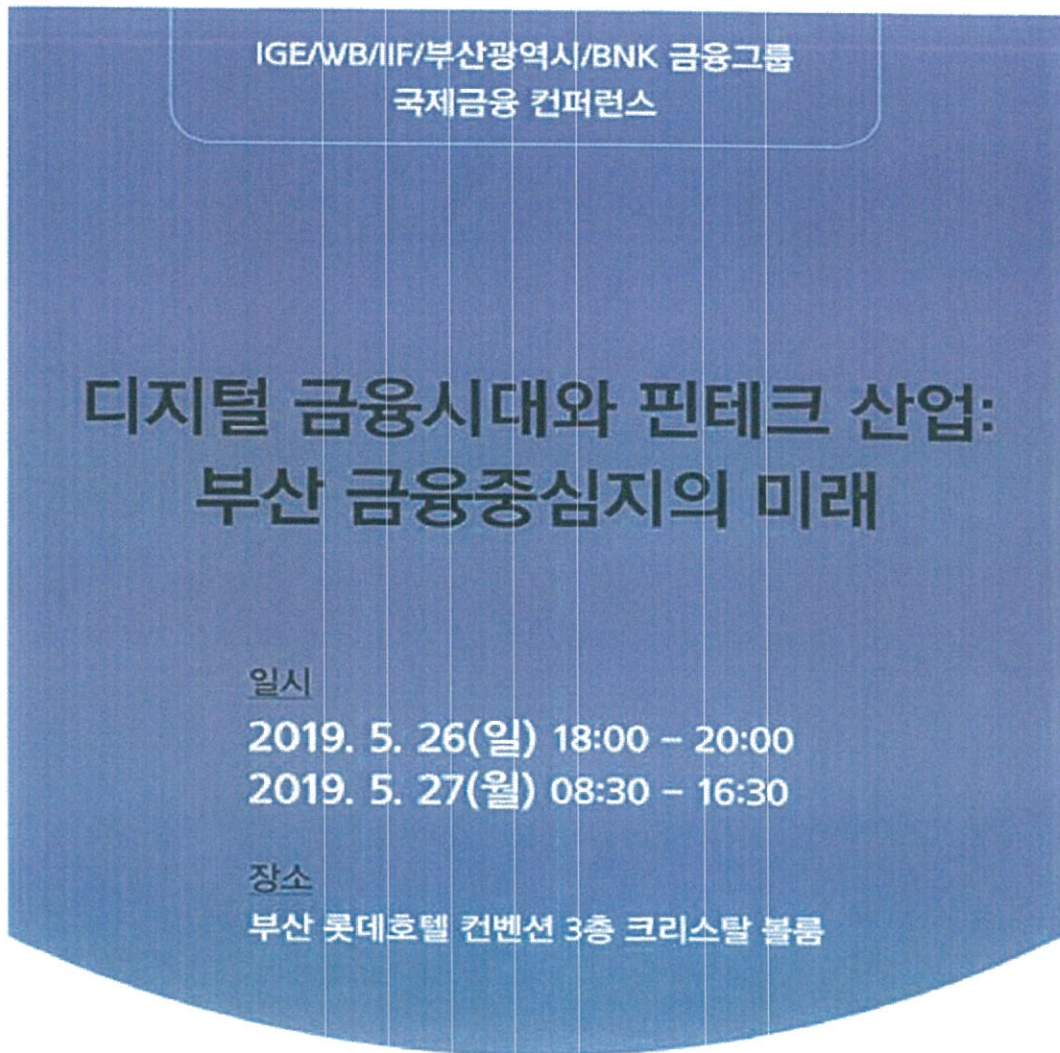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금융중심지의 미래" 국제금융 콘퍼런스 27일 개최

부산 금융중심지 지경 10년 맞아 동북아 금융중심지 도약 선언

윤나리 기자 nryoon@hankooki.com



공동주최



BNK 금융그룹



'부산 국제금융 콘퍼런스' 포스터,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시는 27일 오전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세계 경제연구원, BNK금융그룹과 공동으로 '부산 국제금융 콘퍼런스'를 연다.

이번 콘퍼런스는 '디지털 금융시대와 핀테크 산업:부산 금융중심지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아시아 핀테크 신생기업 리더들과의 특별 간담회와 4개 세션으로 나뉘 국내외 학계, 금융계 등 전문가들이 기조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 시대를 맞아 금융산업 구조적 변화의 전망 및 핵심 과제를 논의하고, 국내 핀테크 산업의 전반적인 육성, 창업 등과 연계한 부산 금융중심지 역할 강화방안 등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세계은행(WB)그룹 국제금융공사 동아시아.태평양 대표 비백 파탁, 홍콩 상하이은행(HSBC)그룹 사장 겸 CEO 데이비드 라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국제금융 수석칼럼니스트 헤니센더 등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기조발표 및 부산 핀테크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과 제언을 이어나간다.

시는 이번 콘퍼런스 주제인 핀테크 산업 육성과 관련해 '부산시-위워크(WeWork) 핀테크허브센터(가칭)'를 오는 7월 말 개소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등 19개 핀테크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19/05/23 11:00: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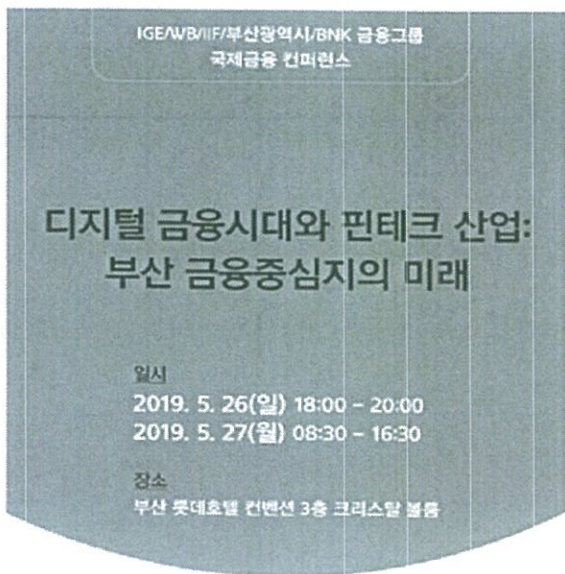
Copyright © 한국미디어네트워크 All rights reserved.



부산시-BNK금융그룹-세계경제연 ‘부산 국제금융 콘퍼런스’ 개최

오는 27일 오전 8시 30분 부산롯데호텔 3층서 개최... 부산 핀테크 발전 방향 등 논의

기사입력 2019.05.23 10:11:32 | 최종수정 2019.05.23 10:11:32 | 변옥환 | cnb@cnbnews.com



‘부산 국제금융 콘퍼런스’ 포스터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와 BNK금융그룹, 세계경제연구원이 오는 27일 오전 8시 30분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부산 국제금융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디지털 금융시대와 핀테크 산업, 부산 금융중심지의 미래’라는 주제로 4개 세션으로 나눠 국내외 학계, 금융계 전문가들이 기초발표와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날 4차 산업혁명과 금융 혁신시대를 맞아 금융 산업 구조적 변화 전망과 핵심 과제를 논의하고 국내 핀테크 산업의

육성, 창업 등과 연계한 부산 금융중심지 역할 강화방안 등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세계은행(WB) 그룹 국제금융공사 동아시아·태평양 대표 비백 파탁, 홍콩 상하이은행(HSBC) 그룹 사장 겸 CEO 데이비드 라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국제금융 수석 칼럼니스트 헤니 센터 등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부산 핀테크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을 이어간다.

부산시 유재수 경제부시장은 “앞으로도 세계경제연구원과 함께 국제금융 콘퍼런스를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금융 콘퍼런스로 꾸준히 발전시키겠다”며 “이번 콘퍼런스의 전문가 제언을 분석해 실제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획과 연계함으로 부산국제금융센터를 명실상부한 아시아 대표 금융센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콘퍼런스 주제인 핀테크 산업 육성에 대한 ‘부산시 위워크 핀테크 허브센터(가칭)’를 오는 7월 말 개소할 계획이다.

여기에 스타트업 등 19개 핀테크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를 명실상부 아시아 대표 핀테크 금융혁신 1번지로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변옥환 (91628lich@daum.net)

© 2004~2017 Copyright by CNBNEWS. All rights reserved.

상단기

인쇄하기

[부산경남브리핑] '금융도시 부산'... 세계 금융전문가 제언은

27일 부산롯데호텔 '부산국제금융컨퍼런스'... 4차 산업혁명 시대 금융도시 부산 방향 토론

기사입력 2019-05-23 16:15:00 | 강영범 기자 | journalist2580@hanmail.net



세계적 금융 전문가들이 대거 부산을 찾는다.

부산시는 27일 오전 8시 30분 부산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BNK금융그룹과 공동으로 '부산 국제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의 주제는 '디지털 금융시대와 핀테크 산업, 부산 금융중심지의 미래'이다. 아시아 핀테크 신생 기업 리더들과의 특별 간담회,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 시대 등을 주제로 국내외 학계·금융계 전문가들의 기조발표와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 시대를 맞아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과 핵심 과제를 논의하고, 국내 핀테크 산업의 전반적 육성, 창업 등과 연계한 부산 금융중심지 역할 강화방안 등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세계은행(WB)그룹 국제금융공사 동아시아·태평양 대표 비벡 파탁(Vivek Pathak), 홍콩 상하이은행(HSBC)그룹 사장 겸 CEO 데이비드 라오(David Y C LIAO),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국제금융 수석칼럼니스트 헤니 쉐더(Henny Sender) 등 세계적 금융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부산 금융산업 방향에 대한 수준 높은 토론과 제언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콘퍼런스의 전문가 제언을 분석해 핀테크산업 생태계 조성계획과 연계, 부산국제금융센터를 명실상부한 아시아 대표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부산경남지역 주요 일간지 기사내용이다.

<부산일보>

-[부산일보·포스트데이터 조사결과] 해운대·금정권 주민 '부산서 가장 행복'

-'노무현의 균형발전' 잊겠다더니 잊었나

-'아찔한' 벽돌 외벽, 26년 동안 한 차례도 유지보수 없었다

-자칫 파국 치달나... 계속된 노사 갈등에 한숨 짓는 부산 경제

<국제신문>

-“불안해 다니겠다”...부산대생 휴교거론 격앙

-접대비까지 포함시킨 시내버스 운송원가

-멸종 40년 만에...따오기, 우포늪 하늘 날다

-23일 노무현 10주기, 봉하에 노란 물결

<경남신문>

-한반도에서 멸종된 따오기, 40년 만에 우포 하늘 다시 날아

-0.209% '만취 버스' 아찔한 심야운전

-올여름 경남 아파트 7622가구 '집들이'

-강고한 지역주의 벽 허물려 했던 '바보 노무현'

<경남도민신문>

-심야 시외버스 기사 '만취운전' 아찔

-오늘 노무현 10주기 추도식에 여권 핵심 총집결

-道 "스마트공장 정착, 공급기업 경쟁력 확보 필수"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서 경남식품 '인기몰이'

강영범 기자 (journalist2580@hanmail.net)

이 기사 주소: <http://pk.newdaily.co.kr/site/data/html/2019/05/23/2019052300066.html>

Copyright © Newdaily All rights reserved.

부산 국제금융 콘퍼런스 개최 "금융중심지 미래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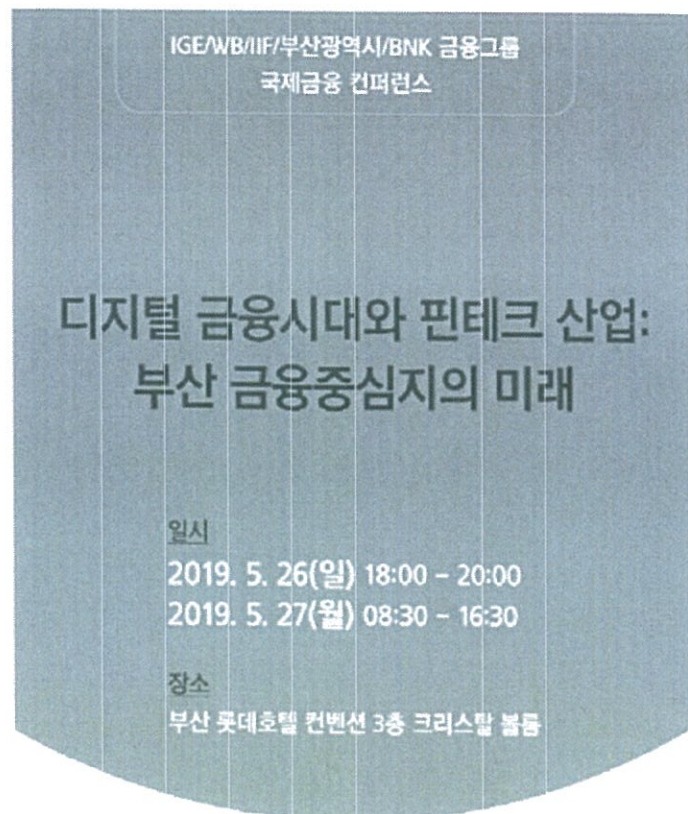
부산시·세계경제연구원·BNK금융그룹, 산업 구조적 변화 전망 핵심 과제 논의

최종수정 2019.05.23 09:52:12 | 홍민지 기자(=부산) | business@pressian.com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0년을 맞아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콘퍼런스가 열린다.

부산시는 오는 27일 오전 8시 30분 부산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BNK금융그룹과 공동으로 '부산 국제금융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디지털 금융시대와 핀테크 산업 부산 금융중심지의 미래'라는 주제로 아시아 핀테크 신생기업 리더들과의 특별 간담회,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 시대 4개 세션으로 나눠 국내외 학계, 금융계 등 전문가들이 기조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공동주최



WORLD BANK GROUP

▲ 부산 국제금융 콘퍼런스 포스터 < 부산시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 시대를 맞아 금융산업 구조적 변화의 전망 핵심 과제를 논의하고 국내 핀테크 산업의 전반적인 육성, 창업 등과 연계한 부산 금융중심지 역할 강화방안 등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세계은행(WB)그룹 국제금융공사 동아시아-태평양 대표 비벡 파탁(Vivek Pathak)과 홍콩 상하이은행(HSBC)그룹 사장 겸 CEO 데이비드 라오(David Y C LIAO),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국제금융 수석칼럼니스트 헨리 센더(Henny Sender) 등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기초발표 부산 핀테크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과 제언을 이어나간다.

콘퍼런스의 공동 주최기관 세계경제연구원(IGE) 전광우 이사장은 "이번 행사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개최됐으나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0년을 맞아 부산이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 새로운 10년의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 부산에서 유치·개최한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부산시 유재수 경제부시장도 "앞으로 세계경제연구원과 함께 국제금융 콘퍼런스를 국내외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역내 대표적 금융콘퍼런스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번 콘퍼런스의 전문가 제언을 분석해서 실제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획과 구체적으로 연계, 부산국제금융센터를 명실상부한 아시아 대표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콘퍼런스 주제 핀테크 산업 육성과 관련 '부산시 위워크(WeWork) 핀테크 허브센터(가칭)를 오는 7월 말 개소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등 19개 핀테크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며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를 명실상부 아시아 대표 핀테크 금융혁신 1번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홍민지 기자(=부산) (bsnews4@pressian.co)

창닫기

뉴스투데이

부산국제금융 컨퍼런스 27-28일 개최

 이만홍 2019년 05월 24일 07시 20분 00초

글자 크기    인쇄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국제금융컨퍼런스가 오는 27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립니다.

‘디지털 금융 시대와 핀테크 산업과 부산 금융중심지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비백 파택 세계은행그룹 국제금융공사 동아시아-태평양 대표와 데이비드 라오 HSBC 그룹 사장 등이 참석해 토론과 제언을 이어갑니다.

국제금융컨퍼런스는 지난 1993년 이래 서울에서 개최돼 왔지만 올해는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10년을 맞아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



이만홍

mhlee@busanmbc.co.kr

뉴스데스크

부산금융중심지 10주년 국제금융컨퍼런스

이만홍 2019년 05월 26일 20시 00분 00초

글자 크기 + - 인체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1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금융컨퍼런스가 오늘 저녁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하고 세계은행그룹 국제금융공사와 국제금융협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컨퍼런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산업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내일(27)은 HSBC 그룹 데이비드 랴오 사장이 '국제금융의 구조변화와 핀테크의 진화'라는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서고,

비백 파탁 세계은행그룹 국제금융공사 동아시아 태평양 대표가 아시아 핀테크 신생기업 리더들과 특별 간담회를 갖습니다.

////////////////////



이만홍
mhlee@busanmbc.co.kr

뉴스데스크

"디지털 금융시대..." 국제 컨퍼런스 열려

 정은주 2019년 05월 27일 20시 00분 00초

글자 크기 + -  인쇄



'디지털 금융시대와 핀테크 산업에서 부산금융중심지의 미래'라는 주제의 국제 컨퍼런스가 오늘(27)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세계경제연구원과 부산시, BNK금융그룹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핀테크로 인한 국제금융업계의 변화와, 핀테크 허브로서의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 전략에 대한 논의 등이 진행됐습니다.

국제금융컨퍼런스는 지난 1993년 이후 서울에서 열려오다,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10년을 맞아 올해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정은주
levilo5@busanmbc.co.kr

[홈](#) > [뉴스](#) > [전국](#)

‘국제금융 콘퍼런스’ 부산에서 열려

2019년 05월 27일 (월) 15:39:47

김상진 기자 ✉ spc5900r@bbsi.co.kr

그동안 서울에서 열렸던 ‘국제금융 콘퍼런스’가 금융중심지 지정 10년을 맞아 오늘 부산에서 개최됐습니다.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는 세계은행그룹 국제금융공사 비백 파탁 동아시아.태평양 대표와 홍콩 상하이은행그룹 사장겸 CEO인 데이비드 라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국제금융 수석칼럼니스트 헤니 쉐더 등 세계적인 금융전문가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금융시대와 핀테크 산업’을 주제로 아시아 핀테크 신생기업 리더들과의 특별간담회,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시대 등 4개 세션으로 나눠 발표와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번 콘퍼런스의 공동 주최기관인 세계경제연구원 전광우 이사장은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개최됐지만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0년을 맞아 새로운 10년 성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부산에서 개최하는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 불교방송(<http://news.bbs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뉴스

[부산]부산 국제금융 컨퍼런스 개최

서울

2019-05-28 11:18:31

공유

인천-서,중,동,남동,용진,강화

한빛-안산,시흥,광명

abc-과천,의왕,군포,안양

수원-오산,회성

기남-용인,이천,안성,평택

중부-천안,아산

세종

전주-원주,무주,진안,장수

대구-서,중,남,달서,달성

부산-강서,북,남,서,사상,수영,사하

국회소식

최신뉴스



더 많은 지역채널 소식은 "tbroad1.com"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 크게

금융중심지 지정 1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금융 컨퍼런스가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 시대를 맞아 금융산업 구조적 변화와 전망 그리고 국내 핀테크 산업의 육성과 연계한 부산 금융중심지 역할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가정,부산시-위워크 핀테크허브센터를 오는 7월 말 오픈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부산뉴스 박철우(cwpark@tbroad.com) 기자